

#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김윤 연구\*

하상일(동의대)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2) 전통과 역사의 현재화의 비판적 현실인식      |
| 2.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형성과 전개 | 3) 근원적 고향의식과 분단 조국의 통일을 향한 열망 |
| 3.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김윤의 시세계        | 4. 맺음말                        |
| 1) 재일 디아스포라의 실존과 자연을 통한 성찰    |                               |

## 1. 머리말

최근 들어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을 비롯한 재외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민족문학’이라는 거시적 틀에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재외 디아스포라 문학을 모두 포괄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문학사를 완성하려는 큰 목표를 세우고, 일본, 중국, 미국, 구소련권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남미, 유럽 등의 권역으로 점점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연구가 1차 자료를 소개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한계가 뚜렷한 것이 사실이지만, 재외 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1차 자료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체계화한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8-332-A00130)

도대 위에서 재외 디아스포라 문학은 문학사적 연구의 가능성을 더욱 넓혀 갈 것이고, 그 결과들이 모여 한민족통일문학사의 완성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는 재외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앞선 분야이다.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은 식민지 조선이라는 근대의 상처 안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의 근대문학 연구가 일본과의 영향관계를 주목할 때 반드시 언급해야만 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언어'의 문제는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창작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일본어와 우리말의 이중어 글쓰기라는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특수성에 대해 연구자들마다 입장 차이가 너무도 뚜렷했기 때문이다.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는 일본문학 전공자들이 일본문학 내의 소수자 문학의 한 양상으로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일본문학 전공자들은 “재일 동포문학이란 일본에서 우리 동포들이 일본어로 쓴 문학”<sup>1)</sup>에 한정된다는 범주 설정을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재일동포들의 우리말 문학은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의 중심 대상이 되지 못한 채 변방으로 내몰려 있는 실정이다.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가 소설 장르에 편중되었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본문학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아쿠타가와상, 나오키상 등 일본의 권위 있는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 작품에 대한 번역 소개가 활발했고, 식민과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재일동포들의 역사적 현실을 서사화한 김달수, 김석범, 이희성, 양석일 등의 소설이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일본 내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실상과 재일 디아스포라의 역사적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이념적으로든 언어적으로든 한쪽 면만을 보여주는 한계가 뚜렷하다. 또한 장르에 있어서도 식민과 분단 그리고 재일의 상처와 고통을 직접적으로 형상화한 소설문학에 너무 압도된 나머지, 디아스포라의 실존과 정체성을 고민해온 시문학을 소외시킨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sup>2)</sup>

1) 이한창, 『머리말』, 전북대학교 재일동포연구소 편, 『재일 동포문학과 디아스포라 1』, 제이앤씨, 2008, 1쪽.

2) 하상일,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와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51집,

이런 점에서 본고는 지금까지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시문학 분야를 주목하여, 그 대표적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김윤의 시세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윤(1932 ~)은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진주에서 성장하면서 진주농림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동국대학을 중퇴했다. 1950년대 전쟁 중에 부산에 모여 있었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던 『신작품』의 동인(고석규, 천상병, 송영택, 김재섭, 김소과, 이동준)으로 활동했고,<sup>3)</sup> 1951년 한국전쟁 중에 일본으로 건너가<sup>4)</sup> 명치(明治)대학 농학부를 졸업했으며, <재일대한민국거류민단>(이하 <민단>) 중앙본부 선전국장 및 기관지 『한국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현대문학』의 일본지사장을 맡기도 했다. 그의 시집으로는 『멍든 계절』(현대문학사, 1968)과 『바람과 구름과 태양』(현대문학사, 1971)이

---

한국문화회, 2009. 4. 166쪽.

3) 『신작품』은 1952년 3월부터 1954년 12월까지 총 8권이 발간되었다. 이 가운데 김윤은 2집에 『호수』, 3집에 『나무』, 4집에 『가을』을 발표했고, 5집부터는 동인 명단에서도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당시에 그는 본명인 김동일(金棟日)로 활동했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2006년 1월 일본 동경에서 그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알게 되었다. 『신작품』에 관한 연구로는 송창우의 『경남지역 문예지 연구』(경남대 석사논문, 1995)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도 김윤(김동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김윤 시인에 관한 논문으로, 김은영의 『김윤 시 연구』(김학렬 외, 『재일동포 한국어문학의 전개 양상과 특징 연구』, 국학자료원, 2007)가 있다. 그런데 이 논문에는 김윤 시인이 “1947년 부산에서 발행된 동인지 『신작품』에 『등불』로 등단,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잘못 기술되어 있다. 김윤 시인이 1932년생이므로 1947년이면 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무렵이었고, 당시에는 『신작품』이 발간되지도 않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김윤 시인이 진주 지역 고등학교 학생 문단 활동을 한 것을 두고 잘못 기술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4) 김윤의 첫 시집 『멍든 계절』의 서문을 써준 조연현의 증언을 들어보면 당시 김윤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 “金潤兄을 내가 처음 만난 것은 6·25事變 중의釜山에서였다. 몇사람의 젊은 靑年들과 함께 東國大學에의 入學을 상의하기 위하여 나를 찾아왔었다. 나는 金兄의 東國大學에의 入學을 그때 알선해준 것 같다. 文學의 傳統이 강한 東大에 入學한 金兄은 곧 이형기, 박재삼, 송영택 諸兄들과 그룹이 되어 여러 가지 文學活動에 參加하고 있었다. 그때는 本名인 金棟日로 通해 있었다. 收復과 함께 나는 金兄의 消息을 몰랐고, 그에 대한 記憶도 아주 희미해졌다. 金兄이 日本으로 건너간 것이 그 무렵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조연현, 『序』, 김윤, 『멍든 계절』, 현대문학사, 1968. 8쪽.

있다. 그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총련>) 소속이 아니면서도 지금까지 우리말로 시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특이한 이력은 북한문학의 노선을 충실히 반영한 <총련>의 문학과도 분명 다르고, 일본어 글쓰기를 통해 제일의 독자성을 드러낸 <민단>에 소속된 대부분의 재일동포 문학과도 다르다는 점에서, 해방 이후 제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독특한 지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김윤의 두 권의 시집과 『신작품』, 『한양』에 발표한 시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했음을 밝혀둔다.

## 2. 해방 이후 제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형성과 전개

해방 이후 제일 디아스포라 문학 활동의 중심에는 『민주조선』, 『조선문예』 등의 잡지와 김달수, 이은직 등의 소설가, 그리고 허남기, 강순 등의 시인이 있었다. 『민주조선』<sup>5)</sup>은 일본어 종합지였지만 문학 지면이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문학지로서의 성격을 두드러지게 드러냈다. 이 잡지는 일본인들에게 식민지로 인해 왜곡된 조선의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창간되었다. 『조선문예』<sup>6)</sup>는 『민주조선』이 14호를 간행하고 15호를 준비하던 무렵인 1947년 10월 창간된 종합문예지로, 주요 필자들 대부분이 <재일조선문학자회>

5) 1946년 창간되어 1950년 7월까지 통권 33호 간행되었다. 발행인은 조진용을 시작으로 한석철, 윤병옥 등으로 이어졌고, 10호의 경우에는 제호를 『문화조선』으로 변경하여 발행하였다. 출판사 역시 여러 번 바뀌었는데, 민주조선사(1-3호), 조선문화사(4-9호), 문화조선사(10호), 조선문화사(11-22호)로 잦은 교체를 거듭하다 23호부터 민주조선사에서 종간호까지 발간하였다. 잡지의 발행 책임은 김원기(1호), 김달수(2-24호)가 맡았고, 25호부터는 발행인 윤병옥이 편집을 겸하였다. 하상일, 『한국문학과 역사의 그늘』, 소명출판, 2008, 101쪽.

6) 박삼문이 발행과 편집을 맡고 김달수, 이은직, 허남기, 강순 등이 필자로 참여하였다. 이 잡지는 1948년 11월까지 발간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필자가 일본 동경 소재 근대문학관에서 입수한 자료는 모두 4권에 불과하고 1권의 목차만 추가로 확인하였다. (1947년 10월 <창간호>, 1947년 11월, 1948년 2월, 1948년 4월, 1948년 7월) 하상일, 위의 책, 101~102쪽.

에 소속되어 있었고, 이 가운데 김달수, 허남기 등은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 계열의 『신일본문학』과도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처럼 『민주조선』과 『조선문예』는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이념적 지향성과 구체적 활동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잡지이다.<sup>7)</sup> 그리고 김달수, 이은직, 허남기, 강순 등은 이러한 잡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의 토대를 마련한 재일 디아스포라 1세대라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경우에는 허남기, 강순, 남시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sup>8)</sup> 김시중, 김윤, 그리고 정화흠, 정화수, 김학렬 등 <종소리시인회> 소속 시인들로 이어져 왔다. 대체로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은 언어의식과 주제의식의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모어(母語)인 일본어와 모국어(母國語)인 우리말 사이에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중 언어의 현실은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들의 정체성 형성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식을 던졌다. <총련>의 결성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들 상당수가 일본어가 아닌 우리말 창작을 해야 한다는 민족적 요구에 따라 우리말 시 쓰기로 전환했던 상황<sup>9)</sup>과, 식민지 교육을

7)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들이 발간한 주요 매체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호테이 토시히로의 『해방 후 재일 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 - 1945년~60년대 초를 중심으로』(『인문논총』 제47호,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2002)에 잘 정리되어 있다.

8) 김학렬은 “해방직후에는 지식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를 쓰려고 나섰으나 그 후 정치분야, 교육분야 등에 진출하여 사회과학분야에 나선 사람들도 있고, 시집을 낸 사람은 강순(『조선부락시초』)과 남시우(『봄소식』), 허남기(일어시 『朝鮮冬物語』) 뿐이며, 조국(북한-필자 주)에서 나온 첫시집 『조국에 드리는 노래』에는 허남기, 남시우, 강순의 3인만이 있었다. 따라서 해방직후 1950년대까지는 엄격히 말해서 시문학역량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나 그 핵심에는 단 3인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를 허남기, 남시우, 강순의 3인 시대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학렬, 『재일 조선인 조선어 시문학 개요』, 와세다대학 조선문화연구회·해외동포문학편찬사업추진위원회·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공동 주최, <재일 조선인 조선어문학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자료집, 2004년 12월 11일, 와세다대학교, 3~4쪽.

9) 이에 대해 김학렬은, “1955년 민족적 주체를 지키려 <총련>이 결성된 후 비로소 우리 작가도 일본어문학이 아니라 모국어 문학 창조에 나서야 한다는 자각을 가슴 깊이 가다듬게 되었다. 당시 일본문단의 총아로 이름이 높았던 시인 허남기(초대 <문예동> 위원장)도 일본말 창작에서부터 우리말 창작으로 전환하였다. (중략) 우리 작가가

받은 데서 비롯된 일본어의 자연스러움과 우리말의 부자연스러움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해 결국 일본어 시 쓰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시인들의 현실<sup>10)</sup>이 충돌하면서, 재일 디아스포라의 언어 현실은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이중 언어의 상황을 그대로 노출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은 언어와 이념을 기준으로 극단적 이원화가 가속화되었고, 이후 언어와 이념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일본어 창작이 점점 더 유효성을 확보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을 언어의식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김윤의 시는 상당히 특수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남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이미 우리말에 능통했고, 대학 재학 시절 동인지를 통해 문학 활동을 했으며

---

우리 민족어로 문학을 한다는 '정상'의 일이 그러나 '이상'의 우경화 바람이 휩쓰는 여기 일본땅에서는 역풍을 뚫고 나가야 할 힘든 투쟁의 매 시각을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재일조선문학, 그 본질적 특징은 첫째로 일제 식민지시기 빼앗긴 우리말을 도로 찾고 민족어에 담긴 민족정신과 민족의 숨결로 살려서, 즉 재일동포들의 '자기회복'의 문학이라고 간주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김학렬, 『시지 『종소리』가 나오기까지 - 재일조선시문학이 지향하는 것』, 『치마저고리』, 219~220쪽.

- 10) 김시중은 식민지 시절 자신의 모습을 '황국 소년'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하였다. 보통학교 2학년까지 일주일에 겨우 한 시간 정도 조선어를 공부했던 것이 그가 배운 우리말 교육의 전부였다. 따라서 그에게 '국어'는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가 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일본어는 자신의 정신과 의식을 지배하는 언어적 토대로 내면화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해방을 맞이했고, 일본인에서 조선인으로 바뀐 자신의 모습에서 정체성의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그야말로 손톱으로 벽을 긁는 심정으로 제 나라의 언어를 '가나다'부터 배우기 시작했"지만, "사고의 선택이나 가치 판단이 조선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에서 분광되어 나"오는 자기모순을 극복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에게 있어서 '일본어'는 의식의 존재로서 자리 잡은 최초의 언어였으므로, 일본어를 버리고서 자신의 의식을 형성한다거나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일본어를 사용하면서도 일본어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방법적 전략을 세워야만 했다. 즉 일본인의 시각과 감성과 사유를 깨뜨리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실존적 언어로 자신이 사용하는 일본어의 의미를 재발견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상일,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김시중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71집, 한국언어문화회, 2009. 12. 20. 521쪽.

로 우리말 시 창작에 익숙했다. 그러므로 김시종을 비롯하여 당시 일본어로 창작을 했던 시인들 대부분이 우리말을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어로 시 창작을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 따라서 김윤은 다른 시인들처럼 우리말 시 쓰기를 중단하고 일본어로 시 창작 활동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또한 그는 <민단> 소속이었으므로 <총련>의 강령에 종속된 이념적 태도와도 사실상 무관했다는 점에서, 그의 우리말 시 쓰기는 조직의 강령에 구속된 강요된 선택도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가운데 우리말을 가장 자유롭게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상당히 자유로운 시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윤과 마찬가지로 우리말 창작을 했던 시인들의 대다수가 작품을 발표한 매체가 『한양』<sup>11)</sup>이다. 『한양』의 창간은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 활동이 그 양과 질의 측면에서 동시에 두드러진 면모를 보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양』은 1962년 3월 일본 동경에서 창간되어 1984년 3·4월호(통권 177호)로 중단된 우리말 잡지였다. 『한양』의 편집인 겸 발행인은 김인재였고, 잡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시, 소설, 수필, 평론 등의 문학작품과 당대의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문

11) 지금까지 발표된 『한양』 관련 연구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허윤희, 『1960년대 참여문학론의 도정 - 『비평작업』, 『청맥』, 『한양』을 중심으로』, 『희귀잡지로 본 문학사』, 상허문학회 편, 깊은샘, 2002 ; 박수연, 『1960년대의 시적 리얼리티 논의 - 장일우의 『한양』지 시평과 한국 문단의 반응』, 『한국언어문학』 50집, 한국언어문화회, 2003 ; 하상일, 『1960년대 문학비평과 『한양』』, 『어문논집』 50호, 민족어문화회, 2004 ;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 연구 - 『한양』, 『청맥』, 『창작과비평』, 『상황』을 중심으로』, 부산대 박사논문, 2005 ; 이현홍, 『『한양』 소재 재일 한인 문학의 연구 방향과 과제』, 『한국민족문화』 25집,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5 ; 하상일, 『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42집, 한국문화회, 2006 ; 고명철, 『민족의 주체적 근대화를 향한 『한양』의 진보적 비평정신 - 1960년대 비평 담론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19집, 한민족문화학회, 2006 ; 한승우, 『『한양』지에 드러난 재일지식인들의 문체의식 고찰』, 『어문론집』 제36집, 중앙어문화회, 2007 ; 하상일, 『1960년대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7집, 한국문화회, 2007, 조현일, 『『한양』지의 장일우, 김순남 평론에 나타난 민족주의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3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및 시론(時論) 등 재일동포들의 의식과 정서를 총체적으로 담아내는 종합지였다. 게다가 『한양』은 당시 남한에서 활동했던 시인들과 재일동포로 추정되는 시인들과 그리고 일본 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의 시 작품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한민족 시문학의 총체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여 년 동안 『한양』에 발표된 시 작품의 수는 약 2천여 편에 달했고, 이 가운데 『한양』 발행 전 기간에 걸쳐 최소 5편 이상 시를 발표한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만 살펴보더라도 21명 정도, 발표작품 수는 대략 640여 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12)</sup>

『한양』에 발표된 시문학의 주제적 특성을 분석해보면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향 상실의 비애와 조국을 향한 근원적 그리움을 노래한 것, 둘째, 조국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참여시의 성격을 표방한 것, 셋째, 재일 한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담아낸 것, 넷째, 이국의 땅에서 자연을 통해 내면화한 자기성찰과 내적 의지를 구현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첫째와 둘째 경향으로, 재일 디아스포라의 근원적 의식과 4월혁명을 비롯한 한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 참여의식을 아주 두드러지게 쟁점화 했다.<sup>13)</sup> 이러한 특성은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특수성

12) 『한양』은 1974년 2월 <문인간첩단사건>에 연루되어 국내로의 유입이 금지되었고, 국내에 소장된 잡지 대부분이 불온서적이란 이유로 소실되어 지금까지도 국내에서는 『한양』의 전모를 확인할 수가 없다. 필자는 2006년 1월 일본 동경 소재 화광대학 도서관 서고에서 『한양』 전체를 확인하고 모든 자료를 입수하였다. 그리고 당시 발행과 편집을 주도했던 김인재 선생을 만나 『한양』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려 했으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인 김인재 선생이 끝끝내 침묵함으로써 여전히 『한양』의 주요 필자 및 관련 사항은 미궁 속에 있다. 다만 당시 김인재 선생의 말을 통해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면, 『한양』에 수록된 시, 소설, 비평의 고정 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박정희 정권의 검열을 피해 필명으로 활동한 남한 문인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상일, 『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42집, 한국문화회, 2006. 4. 396~398쪽.

13) 『한양』의 창간정신은 근본적으로 4월혁명의 시대정신에 바탕을 둔 현실참여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데 있었다. 1960년대 한국 사회의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민족주체의 정신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식인의 실천을 담아내는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했던 것이다. 게다가 『한양』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토대로 한국문학의 현실주의적 성격을 올곧게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을 이해하는 핵심적 주제일 뿐만 아니라, 1960년대 남한의 시문학과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sup>14)</sup>

김윤의 시는 두 권의 시집에 수록된 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한양』에 발표되었다. 그는 『한양』에 53편의 시를 발표했는데, 두 번째 시집 『바람과 구름과 태양』이 출간된 1971년 이전까지는 『한양』에 발표된 시와 두 권의 시집에 수록된 시가 많이 겹치고, 『한양』에 발표한 시를 개작해서 시집에 수록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한양』에 발표한 시의 경우에는 대체로 1971년 이후의 작품만을 신작으로 볼 수 있다. 주제와 내용의 측면에서 보면, 민족의식의 과잉이나 정치적 이념의 획일화를 거부하고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에 대한 실존적 인식과 자기성찰의 시선이 두드러진다. 또한 <민단> 내에서 진보적 성향을 지녔지만 <총련>과는 일정한 거리를 둬으로써, 서정성에 바탕을 둔 언어 미학의 가능성을 넓혀 나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 김윤의 시는 “재일동포 한국어 문학을 북한문학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성격의 문학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15)</sup>라고 평가할 수 있다.

### 3.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김윤의 시세계

#### 1) 재일 디아스포라의 실존과 자연을 통한 성찰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부터 1946년 3월까지 약 200만 명에 달했던 재일동포 가운데 140만 명 정도가 귀국하고 대략 60만 명 정도가 일본에 잔류하였다. 조국의 광복에도 불구하고 60만 명 이상의 재일동포들이 귀국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은

---

이 때문에 당시 군사정권은 『한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일부 문인들을 좌경시하면서 급기야는 간첩 혐의까지 씌워 억압하는 소위 <문인간첩단사건>을 날조해 내기도 했던 것이다.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과 매체의 비평전략』, 소명출판, 2008, 35~42쪽 참조.

14) 하상일, 『1960년대 『한양』 소재 재일 한인 시문학 연구』, 앞의 책, 205쪽.

15) 김은영, 『김윤 시 연구』, 앞의 책, 193쪽.

당시 조국의 사정이 이념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상당히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즉 귀국 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 궁핍에 대한 걱정으로, 식민지 중주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오면서 받았던 온갖 차별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의 생활터전이었던 일본 땅을 쉽게 떠날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조국으로의 귀환 이후 정치적·경제적 문제에 부딪쳐 다시 일본으로 돌아오거나, 한국전쟁의 와중에 혼란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을 한 사람들도 많았다. 결국 지금의 재일 디아스포라 사회는 해방 이후의 잔류 동포들과 귀국 후 다시 일본으로 돌아온 동포들, 그리고 전쟁 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한 동포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재일동포의 삶은 36년간의 식민 통치의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준 상처 못지않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신분, 직업, 교육, 결혼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일본인과는 다른 극심한 차별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남한을 지지하는 <민단>과 북한을 지지하는 <총련> 조직 사이에서 대립하고 갈등하면서 남한도 북한도 아닌 '조선'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한 삶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즉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에서 남한과 북한, <민단>과 <총련>은 어디까지나 기호일 뿐이었으므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분단이데올로기의 폭력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의 현실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 가운데 한 곳에 가담하는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재일 디아스포라 사회는 재일동포의 인권이나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생활의 문제보다는 조직과 이념에 복무하는 양상에 치중함으로써, 재일동포 사회는 남한과 북한의 이념적 대리전 양상을 양극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김윤의 시는 이와 같은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헛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는 자기모순의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와 이념을 앞세운 재일동포들의 이원화된 목소리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별기떼들이/시끄럽게 난무하는 것”으로 폄하될 뿐이라고 보았다. 결국 “헛된 공간만이/별기떼들을/안고/늘어져있”(『헛된 공간』, 『명든 계절』<sup>16)</sup>)는 패배적인 모습에서 재일 디아스포라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그는 “숨가쁜/異域에서의 명든 사철만이/

16) 이하 김윤의 시를 인용할 때는 『명든 계절』은 I, 『바람과 구름과 태양』은 II, 『한양』에 발표한 시는 III으로 표기한다. 그리고 『한양』의 경우는 발표년월을 따로 밝혀둘 것이다.

셋방살이라는 무거운 지붕 아래서/염치없이 궁글고” 있는 이방인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나는/잃어버린 말과 풍습을/외워보는/시간이/무엇보다도 귀중한 수밖에 없었다”(『멍든 계절』, I)라는 민족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주체적 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낯선 데서//풍습도 그러했고/말도 서투른데/서로 어깨를 비벼가며/사는 사람들//  
언제부터/그러했는지는 지금은 아랑곳 없어지고/그렇게 해서 살 수밖에 없는/사람들  
//몽땅 까먹어버린/선조의 유산은/흔적마저 희미해지고//異邦살이의/지치인 표정들  
만/구슬알처럼/몽글몽글해져/고향은커녕/오늘의 위치조차 종잡을 수 없는/희한한  
사람들//피로한/얼굴에는/고향을 찾아야 한다는/그런 愁心들이/함뼉 담긴 채//이  
사람들은/정말/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 『異邦人』 전문(I)

인용시에는 민족과 고향의 동질성을 안고 살아가는 재일동포의 삶이 점점 그 “흔적마저 희미해지고”, “고향은커녕/오늘의 위치조차 종잡을 수 없는” 이방인의 생활에 흠뻑 젖어가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담겨 있다. “異邦살이의/지치인 표정들”, “피로한/얼굴”, “함뼉 담긴” “愁心들”로는 “정말/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게다가 “낙엽은 굴러 또 굴러서/엷뿌리 밑으로 모여든다는데/마음 아프고나 어디로 가느냐/여기 자란 어린것들아”(『낙엽』, I)에서처럼, 재일 3세대 이후로 가면 민족의식이나 역사의식은 급격히 약화되어 재일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따라서 김윤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잡아당기는 信念을 다짐하며/뿔아야 할 잠초무덤이를 바라보며/나는 나설 수밖에 없다”(『雜草』, I)라는 단호한 결심을 한다. “비바람속에서도 늪름”한, “뇌성벽력마저 四圍를 울렸으나” “굴하지 않고/하늘을 찌르는 듯 서있”(『古木』, I)는 고목처럼, 민족적 차별로 고통 받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에 맞서 싸우는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방인이 떠주는 밥술에/배를 불리잔 생각만은/말고//황금으로 만들어도/사슬은 사슬/남이 주는 세월에 기대지 말고//너를 낳은 땅에서/네가 디디고 선 거기에

서/헐벗고 동강나고/뺨빠지고/ 눈물마저 말라버린 어버이들이/보내는 말을/잊지말라”(『아들에게』, II)라고 간곡히 당부하는 것이다.

이처럼 김윤의 시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장 중요한 시적 토대로 삼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낙엽”, “잡초”, “고목” 등과 같이 자연의 속성으로부터 인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성찰적 시선을 통해 구체화해 나갔다.

칼칼하게 말라붙은/우수수 나뭇잎이/저녁노을을 함뻍 받고 진다//곁에서는/悲愁와 絶望과 背反과/온갖 허무한 폴레(‘폴벨레’의 오기 - 필자 주)들이/마구 옷깃을 당기는/그런 風景이 이루어져 있고//슬픈 景致와 빛깔이/아까운 나날을 쪼먹는/그러한 暮景을 등지고/해는 지는데//그래도 고향쳐 불러치면/한없는 기쁨이/목을 감아붙이는 충동을/누를 수 없고/싹피렇게 갈아세운/칼날처럼/은근히 노리기도 하는/당굴어진 世相의 꼬락서니가/겹쳐서 風景을 오려내는 落葉의 季節//해가/저물어 가는데/반가운 마음은 아직도 멀고/참참한 땅바닥에서는/아직도 사라지지 않은/그사람들의 발자욱이 나를/쳐다만 보고 있다.

- 『暮景』 전문 (I)<sup>17)</sup>

김윤 시인은 저물녘의 풍경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그의 시의 시간적 배경은 어스름이 깔리는 저녁 무렵이다. 하루의 일상에 쫓겨 살아가는 인간이 자연의 풍경을 바라보며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저물녘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저물녘은 서정시가 탄생하는 가장 필수적인 시간으로 자기성찰로서의 서정적 비전을 열어낸다. 인용시에서 저물녘의 모습은 “슬픈 景致와 빛깔이/아까운 나날을 쪼먹는/그러한 暮景”으로 묘사됨으로써, 인간의 욕망과 부정이 자연의 세계를 어떻게 왜곡하는지를 보여주는 성찰적 시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싹피렇게 갈아세운/칼날”, “당굴어진 世相의 꼬락서니”, “참참한 땅바닥”과 같이 자연을 마주하고 서 있는 인간 사회의 모습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시에서 자연의 왜곡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점점 더 무기력하게 변해가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재적 모습을

17) 『한양』(1966년 12월)에 발표할 때의 제목은 「알곳은 暮景」이었으나, 일부 구절을 고쳐서 첫 시집에 수록하였다.

알레고리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적인 공간이 된다. “해가/저물어 가는데/반가운 마중은 아직도 멀”었다는 데서, 그리고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그사람들의 발자욱이 나를/쳐다만 보고 있다”는 데서,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식민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어두운 현실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김윤의 시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앞으로 이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색하는 길 위에 있다. 그의 시에서 자연을 통한 자기성찰의 세계가 두드러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고통과 눈물이 지금을 노리지마는/군데군데 박힌 든든한 里程標를 굽어보며/쉴새없이/탐탐히/갈수록 웃음이 가차와지고/따뜻한 마중이 기다리는/거기로 통하는/이 길을 또 걸어가야 할 것이다.”(『길』, 1)라고 다짐한다. 인간이 삶의 길 위에서 만나는 온갖 자연의 풍경과 사물들의 모습에서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재를 깊이 성찰하는 뚜렷한 방향성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 2) 전통과 역사의 현재화와 비판적 현실인식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에서 민족과 국가는 개인의 의식을 규정하고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식민지 망국민으로서 고통의 세월을 뛰어 넘어 해방의 감격을 채 누릴 겨를도 없이, 여전히 일본에 남았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일본인 되기를 강요받았던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민족과 국가는 비록 관념적인 실체로 남아 있더라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신념이요 이데올로기였다. 따라서 그들은 언어, 민속, 풍물, 자연, 노래, 놀이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지켜내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이러한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을 밑바탕으로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은 고향 마을의 꽃들과 풀들, 토속적인 음식들<sup>18)</sup>, 지역의 특산물 등을 주요 제재로 선택하여 민족공동체의 역사성을 상징적으로 표상하는데 주력하였다.<sup>19)</sup>

18) 북한의 평론가 류만은, “민속음식과 관련한 여러 시작품에서 풍기는 정서는 동포시인들이 동포들의 생활을 노래한 데서 줄곧 주체성, 민족성을 놓치지 않고 생활체험과 사색을 심화한 결과 이룩된 결실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류만, 『민족의 넋이 높뛰는 애국의 『종소리』 - 시잡지 『종소리』를 읽고』, 『종소리』 제27호, 2006년 여름호, 50쪽.

이러한 의식은 김윤의 시에서 민족적 전통을 표상하는 사물과 장소를 통해 상징적으로 형상화되었다. 그 대표적인 시가 『靑磁』(Ⅲ, 1971년 8·9월), 『靑瓷』(Ⅲ, 1975년 6·7월), 『矗石樓』(Ⅲ, 1977년 2·3월) 등이다.

부드러운/그 靑磁빛깔은/오랜 시련의 표징이었고/平和이기도 했다.//가슴 깊이/간직해 온/겨레의 심정이기도 했다.//더운 날/어제와 내일을 생각하는 것은/퓌어나 고달픈 일이기도 했고/즐거운 일이기도 했다.//뼈저린 아픔을 견디어 온 나날이/옛날 같기도 하고 어제 같기도 하는/어쩔 수 없는 역사의 실마리를 풀어 보는 것은//내일을 위한 결심이기도 했고/오늘을 사는 보람이기도 했다.//오랜 세월/가슴 깊이/간직해 나갈/부드러운 빛깔 속에는/겨레의 우렁찬/고함소리와/한결같은 염원이/깃들어//그것은 내일에도 외침이기도 했고/내일에도 희망이기도 할 것이다.

- 『靑磁』 전문

주지하다시피 “청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산 가운데 하나이다. “청자”는 우리 민족의 “오랜 시련의 표징이었고/평화이기도 했다”으며, “가슴 깊이 간직해 온/겨레의 심정”이었다. 뜨거운 가마에서 며칠을 견디어 나온 청자의 아름다움은 “뼈저린 아픔을 견디어 온 나날”이라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다. 비록 지난 역사의 상징물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내일을 위한 결심”과 “오늘을 사는 보람”이 오롯이 새겨져 있다. 다시 말해 “청자”는 우리 민족이 걸어온 과거의 유산이기 이전에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뛰어난 자부심과 자랑으로 동포들의 가슴에 깊이 내면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청자”를 두고 “오랜 세월/가슴 깊이/간직해 나갈/부드러운 빛깔 속에는/겨레의 우렁찬/고함소리와/한결같은 염원이/깃들어//그것은 내일에도 외침이기도 했고/내일에도 희망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저 항아리 속엔/조상들의 숨결이/샘물처럼 고여 있고/맑은 삶을 담아 안을/근세고 아름다운 意志가/세월의 무늬처럼 수 놓아져 있다.”(『靑瓷』)라는 표현을 통해, 재일 디아스포라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그래서 재일동포들에게 전통과 역사의 현재화를 통해 우리 민족공동체의 정신을 이어나가는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19) 허상일,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와 의미』, 앞의 책, 194~195쪽.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의식과 역사의식은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재에 대한 비판적 현실인식으로 심화된다.

이국에서의/노래는/먼 하늘에서/얼음 금가는 소리//실날같은 시간이/물방울처럼  
/굴러 떨어지면/작년은 이제 없고/또 한해가 어김없이 다가선다//아름인지 그리움인  
지/가슴에 그늘져있는/파뚱소리 소란한/그 산 밑 마을에서도//지금쯤은/백발된 마을  
영감들이/서글픈 웃음으로 한숨지우며/빛없이 자라는 어린것들의/서러운 세배를  
받고 있겠지//쓰디쓴 송년/고향은 마디마디에서 고이는데/차라리 활활 불탈 수나  
있었으면 하는/쑥스런 이치도 생각해본다//시간의 분수령 위에/기류는 노도처럼  
휘감겨//방랑은 서러운 것/몸부림치는 거리에서는/새해의 축배도 싱거워/어서 가버  
려라 지루한 나날

- 「가버려라 지루한 나날」 전문(Ⅱ)

인용시에서 “이국에서의/노래는/먼 하늘에서/얼음 금가는 소리”라는 표현은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재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얼음 금가는 소리”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재일동포의 상실과 아픔이 응축되어 있다. 조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실날같은 시간”을 이어가고 있기에, 재일동포의 내면에는 “작년은 이제 없고/또 한 해가 어김없이 다가”서는 현실의 무상함만이 가득 차오를 뿐이다. 오늘도 재일동포의 삶 가운데에는 식민의 세월과 마찬가지로 “아름인지 그리움인지/가슴에 그늘져있”을 뿐이므로, “차라리 활활 불탈 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조차 부질없는 소망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시인은 이처럼 답답하고 막막한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향해 “어서 가버려라 지루한 나날”이라고 냉담하게 외치는 것이다. 즉“남의 땅에서/낮선 생활에 부대껴/모없는 돌멩이처럼”(「글소리」, Ⅱ) 굳어가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무기력한 현실을 냉정하게 꾸짖고자 했던 것이다. 세월이 더해갈수록 민족과 역사를 까마득히 잊은 채 점점 일본 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암담한 미래를 향한 시인의 준엄한 비판은 “바위”처럼 단단하다. 그는 지금 재일동포 모두가 “오랜 전설들을/푸른 이끼처럼 몸에 감고/노래와 기쁨이 누리에 가득 찰/내일을 향하여” 당당하게 서있는 “바위”(「바위」, Ⅱ)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인은 지금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일본 동경의 문명적 생활과 그 속에 깊숙이 안주하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에 결코 행복해하지 않는다. 그는 “고층빌딩들이 죽순처럼 솟은 곳”인 일본의 수도 동경에서 경험하는 문명 세계야말로, 재일동포들이 디아스포라적 주체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허위적 실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뽀얀/灰빛 하늘이/무겁게 놀리듯 흐리고//豪華와 悲哀를/마구 안고/알을 뺀/高層 빌딩들이 죽순처럼 솟은 곳//현대라는/침예한 쟁투속에서 일빠져/땀없이 부푼 都市// 사람들은/로봇트마냥/計算된 版圖위에서/그저 기계처럼 늙어간다//사람이 自動車를 피해야 할/이슬이슬한 洪水 복판에서/하루에도 수백명의 인명이/그냥 운이 없었다는 망칙한 구실로서/사라져가고//거기서 벗어난/일천만의 각색 인종들이/깜짝깜짝 놀래가며 살아가는/희한한 都市//궁글어가는 메커니즘의/웅대하고 무자비한 수레바퀴에 매달려/나날이 사정없이/저가는/여기/東京//文明은/國籍不明의 進歩를 자랑하고/洋의 東西가 태두리도 없이 뒤섞여/꿀렁거려대는 華麗한 都市//낮밤이 豪華와 悲哀를 서로 등지고/밤이면 뒷골목이 絶望과 酒色과 流行歌로/출렁거리는 빠아픈 樂園으로/변하고//동양 제일/세계 제일/사람들의 살을 깎아먹는 판국에/눈물은 커녕 웃음조차 말라버린/황막한 울안에서/그래도 어쩔수없이/부풀어가는 都市//이악한 이나라의/겨레들이 오려내는/세계수준의 생활版圖위에서/流行의 最先端을 이유로 바라보며/어쩔수없는/나도/그속에 파묻혀/살고 있다.

- 「東京」 전문(I)

동경은 “낮밤이 豪華와 悲哀를 서로 등지고/밤이면 뒷골목이 絶望과 酒色과 流行歌로/출렁거리는 빠아픈 樂園”이다. 게다가 “일천만의 각색 인종들이/깜짝깜짝 놀래가며 살아가는/희한한 都市”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동포들은 세대를 넘어갈수록 “희려한 도시”의 문명에 길들여져 간다. “사람들은/로봇트마냥/計算된 版圖위에서/그저 기계처럼 늙어”가고, “눈물은 커녕 웃음조차 말라버린/황막한 울안”의 현실에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안주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처럼 “땀없이 부푼 도시”, “희한한 도시”에 파묻혀 민족정체성을 은폐하거나 외면하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바라보는 시인의 심경은 절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어쩔 수없는/나도/그 속에 파묻혀/살고 있다”라고 자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현재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실은 민족성과 역사성을 잃어버린 채 세계대국 일본의 문명에 철저히 동화되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이와 같은 현실에 정직하게 맞섬으로써 재일 디아스포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역사적으로 사유하는 비판적 현실인식의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이제는 재일 디아스포라에게도 민족과 국가의 범주를 넘어서는 탈민족적 세계인식의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민족과 국가의 역사성을 전혀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도 안 된다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가 “동경”이라는 세계 문명의 첨단 아래에서 살면서도 고향과 조국에 대한 근원적 의식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양가적 태도와 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3) 근원적 고향의식과 분단 조국의 통일을 향한 열망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식민과 분단의 상처를 경험한 조국의 현실은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주제였다. 따라서 작품의 성격이나 주제가 개인의 정서나 내면성의 확대로 구현되기보다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초점화 하거나 심화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북한의 문예이론에 토대를 두고 <총련>의 애국사업에 대한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한 <총련>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징이 더욱 보편화되어 있었다. 김윤의 시 역시 이와 같은 성격으로부터 전혀 벗어나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단과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이나 주장을 제시하기보다는 잃어버린 고향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를 담아내는 서정적 특징을 두드러지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특이성이 있다. 이러한 근원적 고향의식은 어머니라는 형상을 통해 구체화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I), 『한 어머니의 노래』(I), 『어머니(I)』(II), 『어머니(II)』(II) 등 그의 시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심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몇 번이나/불러보았는지/허나 무슨 고향을 친들/소용은 없었다.//어미 잃은/송아지 때 무리처럼/어디를 가야 할지/텅빈 별관을/와글와글 뱀씩이는/이상한 異域//언제까지/그렇것이라는 것도/알 수는 있었으나//여기는 고향이/멀리 보이는/곳//거기가 그리워/용썩보는 수도/이제는 지쳐//반겨줄/고향은 자꾸만/멀어지는 것만 같고//어머니의 목소리만은/그래도 끊임없이/가늘게나마/하늘에서/메아리친다.

- 『어머니의 목소리』 전문

해방 이후 제일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현실은 “어미 잃은/송아지때 무리처럼/어니들 가야 할지/텅빈 별판을/와글와글 법석이는/이상한 異域”에 있었음에 틀림없다. 제일동포들은 일본 사회에서 주권을 확보하고 일본의 차별 정책에 맞서 싸우기 위한 공동전선을 마련하기 위해 〈민단〉과 〈총련〉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그 역사적 실상을 살펴보면 동포들의 인권이나 생활보다는 남북한의 이해관계에 종속된 이념적 대리전 양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데 치중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제일동포 사회는 남북의 대립과 단절만큼이나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분단 조국의 통일에 대한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가는 허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반겨줄/고향은 자꾸만/멀어지는” 아픔 속에서 유일하게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주는 대상이 바로 “어머니”였다. 그래서 시인은 “어머니의 목소리만은/그래도 끊임없이/가늘게나마/하늘에서/메아리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보름달/둥근 달속에서/어머니가 부른다.”(『보름달』, I)라는 환청을 듣거나, “어머니는 보름달 속에 계신다/어머니는 버드나무 그림자를 비쳐주는/박우물 속에 계신다”(『어머니(I)』)라는 상상에 잠기거나, “어머니를 그리는/웃음과 울음과/絶叫와/그런 것들은/모두 한덩어리로 되어/하나의 결심으로 익어져 가는 것”(『하나의 결심』, II)이라고 결심하는 것은, 모두 어머니로 표상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근원적 의식이 내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sup>20)</sup>

20) 이러한 의식은 그가 국내 문예지에 발표한 수필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맑은 하늘이 유달스리 가까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故郷이 가까이로 밀려오는 듯한 감동을 느끼곤 한다. 유달스리 고향이 가깝게 다가온다는 것은 다만 고향이라는 그런 어쩔 수 없는 뜻에서의 감동에서도 그렇거니와 거리적인 면에서 느끼는 고향의 그리움을 나는 더욱 뼈저리게 느낀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껍이나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멀게 느껴질 때의 고향, 또는 멀어지면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느껴질 때의 고향, 이런 것을 나는 나대로의 異國생활에서 분간해낸 셈이 된 것 같다. 누구누가 다 가졌고 貧富貴賤의 구별없이 만사람 어디에 있던들 지닐 수 있는 것은 고향이다. 나도 그렇거니와 日本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고향이라는 그림고도 아쉬운 짐을 지쳐 피로한 生活이라는 바람에 담아 매고 나날을 치러내고 있다. 수십만의 사람들, 소위 제일동포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슬프면 슬픈대로, 또 즐거우면 즐거운대로 고향이라는 무거운 짐을 풀지 못하는 슬픔과 분함을 품고 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一世들은 고향이란 자기의 뼈를 묻어야 할 피터리는 절실감을 지니고 살고 있다.” 김윤, 『한 노인의 죽음과』

이러한 근원적 고향의식은 분단 조국의 통일을 향한 열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더욱 깊어진다. 재일 디아스포라 사회마저 “언제까지나/서로 웃고 지내야 할 그런 사이임에도/그와 나 사이에는 길다란 검은 그림자가/가로놓여져 있”(『꿈, I』)는 또 다른 분단의 현실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다.

어김없이/수천년 수만년을 두고 가고오는 해//지난해들로 죽순마디처럼 얽혀진/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서/사람들은 한없는 내일의의/기약을 기다든다.//기쁨과 슬픔이  
깃든 해들로 꾸러진/겨레의 머리맡에서는/오늘도 다함없는 삶의 절규가/하늘을  
향하여 울어터지고//남해바다 출렁거리는 과도속에서/익어솟는 금빛햇살은 유난  
히도 뻗어있는데/겨레의 목청을 뚫고 울어터지는 염원은/오늘도 길게 강토위에서  
메아리친다.//벽차고 찬란한 여명을 맞기 위하여/어머니 당신의 정다운 젓꼭지를  
안고/버티어온 겨레의 뜻을 안으소서//우리들 비록 어두운 하늘아래서/고달픈 나날  
을 등지고 살더라도/조국 당신의 훈훈한 흙김이/애타게 코를 찌르는 이역에서의  
노래를 보내오니//잘라진 허리를/마음과 마음/산천과 하늘을/접붙일 새해를 맞을  
날을 위한 노래를.

- 『新年頌② - 1968년을 맞으며』 (I)<sup>21)</sup>

“겨레의 목청을 뚫고 울어터지는 염원”은 재일동포 모두가 자유롭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통일된 세상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다. “비록 어두운 하늘 아래서/고달픈 나날”을 살아왔지만, 어머니 당신의 정다운 젓꼭지를 안고/버티어 온 겨레의 뜻”은 오로지 통일에 대한 열망이었던 것이다. 이 작품이 발표된 1968년은 남북한의 이념 대립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고, 재일동포 사회 역시 〈민단〉과 〈총련〉의 대립과 갈등이 극심했던 때였다. 하지만 시인의 마음에서 드러나듯, 재일동포의 내면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떠한 경계나 구분 없이 오로지 민족의 화합과 단결만이 자리 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시인은 “잘라진 허리를/마음과 마음/산천과 하늘을/접붙일 새해를 맞을 날 위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정치 논리는 재일 디아스포라의 자기정체성에 대한

故郷』, 『현대문학』 1968년 9월호, 274~275쪽.

21) 이 시는 원래 1966년 1월 『한양』에 『새해를 맞아』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시집을 엮으면서 상당히 긴 산문시였던 원작을 전면적으로 개작하여 다시 발표하였다.

신념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남과 북의 이념에 종속된 선택을 강요하는 데 치중할 뿐이었다. 지금 제일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남한도 북한도 아닌 식민지 종주국 일본으로의 귀화가 급속하게 전개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념의 굴레와 속박에 대한 강한 부정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남한과 북한의 통제와 간섭을 벗어나기 위한 현실적 선택의 결과로 제일 디아스포라 사회는 급격히 해체되어 가고 있으며, 제일동포들의 민족의식은 자신들의 인권이나 생활과 전혀 무관한 추상적 관념의 차원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인은 제일 디아스포라의 해체와 변화를 직시하면서, 제일동포 스스로가 남북의 이념적 대리전의 선봉장 역할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오로지 통일을 향한 과제에 더욱 헌신해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제일 디아스포라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무조건 남한과 북한의 탓으로 돌리기거나, 조국 통일의 과제를 남한과 북한 정치권의 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제일동포 사회 내부에서부터 진정한 화합과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실천을 열어가야 한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서로 정다운/사이이면서//서로 외면을 하고/살아야 할 술법만/늘어가고//누구를  
위한/상반인지/이 꼴//허수아비처럼/조롱받다가/헌신짝처럼/버림받을/신세//한낫  
이 무서워/어둠만 찾는 올빼미 망신쟁이들//무엇이/무서워/낮이 싫어서/어둠 속으로  
만 어둠 속으로만/기어드는 분열쟁이들//서로/정답게 살아야 할 사람들끼리//서로  
웃음꽃을 피우며/해와 함께/살 날//구름낀 하늘이/개일 날을 위하여//서로 아껴서/사  
는/사람들//서로 정다운/사이를/웃으며/꽃피울 그날을 위하여//사람들은/낮이나 밤  
이나/도깨비떼들과 맞서고/있다.

- 「그리운 사람들」 전문(II)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채 온갖 차별과 멸시를 당하면서 지금까지 일본 땅에서 함께 살아온 동포들을 향해 “그리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역설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은 민족 분단의 상처가 제일동포들의 가슴에 그대로 전가되어 더 큰 상처를 남기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보여준다. 시인은 “서로 정다운/사이이면서//서로 외면을 하고/살아야 할 술법만/늘어가”는 제일동포 사회의 이원화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상반인지”를 정직하게

묻는다. 계속해서 “이 꼴”로 살아간다면, “허수아비처럼/조롱받다가/헌신짝처럼/버림받을/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한다. 따라서 그는 “낮이 싫어서/어둠 속으로만 어둠 속으로만/기어드는 분열쟁이들”에 맞서 재일 디아스포라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지켜내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강조한다.<sup>22)</sup> 그는 진정으로 재일 디아스포라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서로/정답게 살아야 할 사람들끼리/서로 웃음꽃을 피우며/해와 함께/살 날//구름끼 하늘이/개일 날을 위하여/서로 아껴서/사는/사람들//서로 정다운/사이를/웃으며/꽃피울 그날”이라고 하였다. 재일 디아스포라 사회에서 조국의 통일에 대한 열망은 바로 이러한 노력과 실천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북의 이데올로기를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이념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 4. 맺음말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은 세대의 차이가 문학적 지향의 차이를 가져오는 독특한 양상을 드러낸다. 즉 재일 1세대와 2세대가 민족주체성의 확립과 일본에서의 차별적 지위에 대한 민족적 저항, 그리고 분단의식과 통일의식을 목표로 한 비판적 리얼리즘의 양상을 구체화하고 있는 반면, 재일 3세대 이후의 세대는 민족과 국가에 구속된 혈통의식이나 일본어와 우리말 사이의 갈등에 크게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전혀 다른 문학적 관심과 지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재일 3세대 이후의 세대에게 있어서 ‘재일’은 이념의 차원이 아닌 생활의 문제이므로, 재일 1세대와

22) 이러한 김윤의 시적 태도와 입장에 대해 송면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日本の 僑胞社會를 나는 韓國社會의 畸形的인 縮圖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畸形的인 縮圖에 密室에서 그 어떤 脫出口를 發見하려는 努力도 喪失하고 自己의 理念의인 座標만을 쳐다보면서 自虐의인 態度가 아니면 그저 덩굴어 울 僥倖만을 바라보는 在日 知性들에 대하여 당신은 적지 않는 失望과 義憤을 느끼고 있는 줄로 疑心치 않습니다.” 송면, 『詩人으로서의 姿勢 - 詩人 金潤兄에게』, 『한양』 1966년 9월호, 184쪽.

2세대가 계승하고자 하는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은 관념적 이상에 불과할 따름이다. 따라서 이들은 민족과 국가를 뛰어 넘어 '재일'의 현실을 일본에서 살아가는 현재적 삶의 방법이나 태도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로 사유함으로써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문화의 '틈새(in-between-ness)'<sup>23)</sup>를 창조하려는 디아스포라적 사유의 확대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탈민족 혹은 탈국가 담론을 무조건 추종하는 태도 역시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자칫 재일 디아스포라의 현재적 상황에 대한 과도한 인식이 재일 1세대부터 지금에 이르는 재일 디아스포라 사회의 연속성마저 부정하거나 깨뜨려버리는 단절된 양상으로 심화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은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한인,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조선인, 재일코리안, 재일(자이니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이러한 혼란은 국적, 이념, 정체성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와 일본에서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세대적 변별성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물론 이들에게 확정된 명칭을 부여한다는 것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23) 릴라 간디는 제국주의에 의해 강화된 문화와 정체성들이 전지구적으로 혼합되고 있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혼성(hybridity)'과 '이산(diaspora)'이라는 용어의 분석적 다재다능함과 이론적 탄력성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혼성'이라는 용어에 의해 상징되는 '틈(in-between-ness)'이라는 개념은 이에 수반되는 '이산'이라는 개념에 의해 더욱 정교화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디아스포라적 사유는 문화적 탈공간(dislocation)의 의미를 생성함으로써 재일의 실존적 상황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생산적으로 모색하는 뚜렷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릴라 간디, 이영옥 옮김,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161~167쪽 참조.

24) 이에 대해 김윤 시인은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일본에 사는 동포들에게 '재일'이라는 두 글자가 붙은 것은 8·15 해방 그날부터이다. '재일동포'라고 할 때 그것은 일본에 살고 있는 동포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 '재일 조선인' 혹은 '귀화 한국인·조선인'으로 나누어 부르고 있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이것은 조국의 분단에서 빚어진 정치적 상황과 깊이 관련되는 호칭으로, 밖(한국, 북한)에서도 그런 뜻에서 재일동포를 갈라 불러 왔다. (중략) 재일동포 사회에서 민단과 조총련이 존재하는 한 이 호칭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또 분단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 같다." 김윤, 「민족분단과 이념의 갈등 : 재일본 동포민단」, 『한국문학』 제204집, 1991년 7~8월 합병호, 112~113쪽.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이질성과 다양성을 보이는 이들의 문학 활동을 '재일'의 특수성 속에서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재정립에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일컫는 대부분의 용어에 내재된 이데올로기적 제약과 구속을 벗어나 디아스포라적 주체로서의 관점과 방법론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본고에서 여러 가지 명칭 가운데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부르려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또한 명백한 한계를 지닌 명칭이지만,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포괄하는 객관적인 명칭으로 가장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김윤의 시는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 그는 <총련> 소속 시인이 아니면서도 지금까지 줄곧 우리말 시창작을 해왔고, <민단> 소속이면서도 남한의 보수 이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총련> 사람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그의 시는 <민단>과 <총련>의 이념과 우리말과 일본어의 경계에 휘둘리는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정체성의 혼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다시 말해 그의 시는 이념과 언어에 의해 이원화된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공통분모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이 지향해야 할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개성적인 지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민단>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처음부터 그의 시는 이와 같은 통일된 재일 디아스포라 사회를 지향했고, 그 속에서 한 목소리로 나오는 통일문학으로서의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가능성을 추구해 왔다. 이런 점에서 김윤의 시는 앞으로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 연구가 이념과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 민족과 국가 그리고 조직 모두를 통합하는 새로운 관점과 방향을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주제어 : 김윤, 디아스포라,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 재일동포, 『한양』, 고향의식, 민단, 총련, 이데올로기, 역사의식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김 윤, 『명든 계절』, 현대문학사, 1968.  
김 윤, 『바람과 구름과 태양』, 현대문학사, 1971.  
『신작품』, 신작품동인회, 1952년 3월~1954년 12월(통권 8호).  
『한양』, 일본 : 한양사, 1962년 3월~1984년 3·4월(통권 177호).

### 2. 논문, 낱글 및 단행본

- 김은영, 「김윤 시 연구」, 김학렬 외, 『재일동포 한국어문학의 전개 양상과 특징 연구』, 국학자료원, 2007, 189~211쪽.  
김학렬, 「재일 조선인 조선어 시문학 개요」, 와세다대학 조선문화연구회·해외동포 문학편찬사업추진위원회·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공동 주최, <재일 조선인 조선어문학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움 자료집, 2004년 12월 11일, 일본 : 와세다대학교, 1~11쪽.  
김학렬, 「시지 『중소리』가 나오기까지 - 재일조선시문학이 지향하는 것」, 『치마저고리』, 화남, 2008, 218~234쪽.  
류 만, 「민족의 뉘이 높뛰는 애국의 『중소리』 - 시잡지 『중소리』를 읽고」, 일본 : 『중소리』 제27호, 2006년 여름호, 46~53쪽.  
릴라 간디, 이영옥 옮김, 『포스트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송 면, 「詩人으로서의 姿勢 - 詩人 金潤兄에게」, 일본 : 『한양』 1966년 9월호, 183~188쪽.  
송창우, 「경남지역 문예지 연구」, 경남대 석사논문, 1995.  
전북대학교 재일동포연구소 편, 『재일 동포문학과 디아스포라 1』, 제이앤씨, 2008.  
하상일, 「재일 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42집, 한국문학회, 2006. 4. 391~417쪽.  
하상일, 「1960년대 『한양』 소개 재일 한인 시문학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7집, 한국문학회, 2007. 12. 201~227쪽.

하상일, 『해방 이후 재일 디아스포라 시문학의 역사와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51집, 한국문학회, 2009. 4. 161~203쪽.

하상일,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김시중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71집, 한국언어문학회, 2009. 12. 515~535쪽.

하상일, 『1960년대 현실주의 문학비평과 매체의 비평전략』, 소명출판, 2008.

하상일, 『한국문학과 역사의 그늘』, 소명출판, 2008.

호테이 도시히로, 『해방 후 재일 한국인 문학의 형성과 전개 - 1945년~60년대 초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47호, 서울대 인문학연구소, 2002, 79~103쪽.

[Abstract]

## A Study on the Poet Kim Yun, the Korean-Japanese Diaspora

Ha Sangil

This study looked into the poet Kim Yun, the Korean-Japanese Diaspora. After liberation, the Korean-Japanese Diaspora poetry started from Huh nam-gi, Kang Sun, and Nam si-woo, and it was transferred to Kim si-jong, Kim Yun, Jung hwa-hum, Kim hak-ryeol, and Jung hwa-su.

Kim Yun's poetry world is the most important text to read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 of the Korean-Japanese Diaspora. His attitude reflecting the two Koreas critically can be considered to show vividly Diasporatic subject by looking at the dualism of society of the Korean-Japanese who only followed the contrast of North and South Korean ideological contrast. In addition, his poetry should be praised in that it realized its own identity by practically facing the reality of dual languages of the Korean-Japanese Diaspora conflicting between the mother language and the mother tongue. His poetry has a significant meaning as the guide to newly establish uniqueness and subjecthood of 'the Korean-Japanese' beyond national ideality of the society of the Korean-Japanese who is still captured by North and South ideology. And His poetry definitely became the most significant guide to overall understand the history and meaning of the Korean-Japanese Diaspora after liberation.

After liberation, the Korean-Japanese Diaspora poetry was based on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ideology of the Korean-Japanese who internalized their hurt of colonization and division. Therefore, most of works tried to stand for realistic nature directly showing political issues, instead of focusing on deepening the lyricism to condense personal emotion to the indented world. As

post-nationalism, post-society discourse is currently appearing as the important issue beyond the boundary of race and nation, the perspective of 'Diaspora' and problem awareness have attracted attention as the effective discourse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rapidly changing world. Kim Yun's poems have an important literary meaning as the text containing such the problem awareness.

**【Key words】** : Kim Yun, Korean-Japanese, Korean-Japanese Diaspora, the Korean-Japanese Diaspora poetry, Chongryun, Mindan, historical consciousness, ideology, homesickness, Han-yang

---

---

하상일

동의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614-7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 동의대학교

전자우편: newpoem21@deu.ac.kr

---

---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12월 3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